

담양군, 가나종묘·일본 의료법인과 토마토 브랜드 활성화 협약

가나종묘 개발 기능성 토마토 '루비벨' 재배 확대·가공·수출 담양 명품화 브랜드 '토담토담' 일본시장 진출 첫 계기 협력

담양군은 3월 27일 농업회사법인 가나종묘(대표 안예원), 일본 의료법인 히마와리(이사장 마츠오 신지로)와 기능성 토마토 '루비벨'의 일본 시장 개척과 담양군의 토마토 명품 브랜드 '토담토담'의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서 담양군은 토마토의 명품화를 위해 지난해 브랜드 이름을 공모해 '토담토담'으로 선정했고, 지난 1월에는 지역 종묘업체 가나종묘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특히 가나종묘에서 개발한 신품종 토마토 중에서도 매우 유망한 품종인 '루비벨'은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와 피부 미백 기능을 가진 기능성 물질 '파이토엔(phytoene)'과 '파이토플루엔(phytofluene)'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맛과 모양, 부드러운 식감에서도 경쟁력이 뛰어나다.

'루비벨'의 안정적 재배를 위해 가나종묘와 담양군농업기술센터는 함께 시험 재배를 이어왔으며, 담양군 토마토 주요 재배 단지에서

2023년 하반기부터 재배해 올 1월부터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 담양군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공모사업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담양군과 가나종묘, 일본 히마와리는 '루비벨' 토마토의 재배 확대 뿐 아니라 가공 및 수출에도 협력, 담양군의 명품화 브랜드 '토담토담'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첫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기능성 토마토 브랜드인 '토담토담'이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담양에서 생산되는 최고 품질의 토마토로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과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망한



신소득원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군, 평림댐에 '기후변화 도시숲' 조성

1ha 유휴지에 나무 430여 그루, 관목 식재



장성군이 평림댐에 '기후변화 도시숲'을 조성했다.

'기후변화 도시숲' 조성사업은 기후변화로 도시 중심부 기온이 높아지는 '열섬현상' 완화와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규모 숲을 만드는 사업이다.

산림청 지원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장성군은 평림댐 유휴지 1헥타르(ha) 면적에 소나무, 칠엽수, 애기동백, 주목, 계수나무 등 43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 남정, 영산홍, 꽃망초 등 관목 2만 8000여 그루도 복층 구조로 심어 볼거리를 갖겠다. 방문객을 위한 산책로 조성과 의자, 안내판, 수목표 설치도 잊지 않았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평림댐 도시숲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휴식의 시간 가지시길 바란다"면서 "탄소 순배출 '0'을 만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유휴지 도시숲 조성을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성=김수권 기자

화순꽃강길 음악분수대, 이달부터 공연 시간 변경

9월까지 저녁 8시...내일부터 적용

화순군은 3월 29일 일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대 1회차 공연 시간을 4월부터 9월까지 저녁 8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대 공연 시간은 4월 1일이 원래 시설점검차 휴장일인 만큼 사실상 4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평일(화~금) 1회차 공연 시간이 저녁 8시로 변경됨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 1, 2회차 공연 시간도 기존의 저녁 7시, 8시에서 저녁 8시, 9시로 재조정되었다.

군 관계자는 "음악분수 연출의 최적화를 위하여 화순군 일몰시간에 맞춘 공연 시간 변경이 불가피했다"라며 "착오가 없도록 주변에 널리 전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주력...GAP 인증 확대한다

멜론 재배 농가 대상 농산물 우수관리(GAP) 기본교육 실시

곡성군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선호에 따라 지역 농가와 함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28일, 멜론 재배 농가 80여 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제도는 작물의 재배환경과 재배과정, 수확, 수확 후 관리 과정에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유해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허용 기준치 이하

로 관리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제도다.

곡성군은 지금까지 750여 농가가 참여한 다양한 품목에 대해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와 안전성 분석비를 전액 지원해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



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확대로 소비자들이 곡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나주 농민 풍년기원 영농발대식 개최

나주시가 3월 29일 '2024년 나주 농민 풍년기원 영농발대식'을 개최했다.

영농발대식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 앞서 농민들의 무사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대규모 행사로, 지난 1980년대부터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나주농민회(회장 박용래)와 여성농민회(회장 송숙희) 공동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영농발대식은 종합스포츠타워 내 다목적체육관에서 1500여 명의 농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풍년을 기원하는 풍물공연과 길놀이, 시립국악단 축하공연 천신제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나주농민회·여성농민회장의 대회사, 내외빈 격려사 및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농민회는 농민기본법 제정, 양곡관리

법 전면개정, 필수농자재법 제정 등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어려운 농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상호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려운 국내외적인 여건에서도 농업을 수호하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농민들께서 마음 놓고 농사지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